

“기업하려면 고창으로 오세요”

기업하기 좋은 투자환경 조성



고창군이 활력넘치는 경제정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개념도.

군, 지난해 30개 기업에 대출이자 120억원 지원 등 유치 총력을 용자 한도 확대·투자기업 지원 요건 완화 등 인센티브 확대

고창군이 민선 8기 군정 시작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와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며 기업유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고창군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중소기업 육성기금 이차보전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지난해 30개 기업에 120억원의 대출이자를 지원해 기업의 호응이 좋았던 만큼 올해도 기업의 경영 안정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올해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용자 용도 및 한도액 확대, 이차보전 비율 상향, 기업운영심의위원회 규정을 보강해 '고창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와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따라 자금 운용에 있어 많은 기업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기업유치 활성화를 위해 투자기업에 대한 보증금 지원 확대와 함께 지원요건을 완화하는 등 인

센티브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고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를 개정, 고창만의 특색을 살린 투자유치 정책으로 선도적인 친환경 ESG 기업을 유치하고 일자리를 늘리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세부적인 내용으로는 투자보조금 지원기준인 상시고용 최소 인원과 대규모 투자 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기준인 투자금액 및 기반시설 설치 비용 완화, 시설투자보조금 지원 비율 상향이다.

특히 최근 기업경영의 트렌드인 친환경 첨단 미래산업 ESG 기업 유치를 위해 고창일반산업단지를 '신활력산업단지'로 명칭 변경 중에 있고, 투자유치 지원단을 구성해 적극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펼치고 있다.

고창신활력산업단지는 서해안고속도로와 고창~담양간 고속도로 고창IC·남고창IC·선운산(흥덕)IC 3개와 직접 연결돼 최상의 교통 접근성을 갖추고 있다. 또 지정학적으로도 목포와 군산의 중간에 위치해 서해안 시대를 맞아 대 중국 및 동남아시아 해양 및 육로 운송 물류 전진기지로써 급부상하고 있다.

이영운 고창군 생활경제정책관은 "고창군에 투자한 기업과 중소기업들이 지역에 잘 정착하고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맞춤형 기업 지원 정책을 발굴해 '기업하기 좋은 고창'을 만드는 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남원 식품가공업체 '지리산처림'의 생산 제품.

남원 '지리산처림' 농진청 가공식품 '최우수'

남원의 식품가공업체 '지리산처림'이 농촌진흥청 주관 '2022 가공식품 마케팅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게 됐다.

남원시 농업기술센터는 지리산처림이 1차 서류심사와 2차 발표심사를 통해 지자체 추천을 받아 참가한 8개 경영체 중 최우수상 수상자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지역자원을 활용한 가공식품의 개발·판매로 농가소득 및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

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우수한 농업경영체를 선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우수상 수상자로 선정된 지리산처림은 농촌진흥청 청장상과 상금 150만원을 받게 됐고 시상식은 다음달 22일에 열릴 예정이다.

지리산처림 정정은 대표는 "지역자원을 연계한 지속가능한 스마트팜을 통해 잠들게 연구개발에 대한 토대를 만들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kwangju.co.kr

정읍 '시민참여 정책 제안' 14건 선정

한달간 198건 접수

정읍시가 시민과 소통하는 시정을 실현하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수렴하고자 추진한 '시민참여 정책 제안 페스티벌'의 수상작을 선정했다.

정읍시는 창의성과 실현 가능성, 경제성, 실용성, 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시민 7건, 공무원 7건 등 최종 수상작 14건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7월27일부터 8월26일까지 시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정책 제안을 공모했다.

공모는 특별주제 '정읍역-정읍천 연계 핫플레이스 조성' 아이디어와 일반주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우리 주변 개선-시행해야할 정책'으로 주제를 나눠 공모에 나섰고 그 결과 198건의 제안이 접수됐다.

특별주제 수상작은 ▲정읍역-정읍천 인도에 바다화로 정읍을 알리자(임경빈, 시민) ▲천변 경사

로형 진입로 및 하천 연결다리 개설(이소연, 공무원)이 선정됐다. 이어 일반주제 수상작 중 시민 부문은 ▲회전교차로 LED 유도등 설치(박상하) ▲아양숲 산책로 CCTV 설치(김혜희) ▲정읍시 공공자원 현황과 이용에 관한 공개시스템 구축(윤의영) ▲천변 자전거도로 정비(박광석) ▲정읍시 정체성 재발견 축제거리 조성(김후남) ▲천변 주변 환경 조성(김현준)이 이름을 올렸다.

공무원 부문에서는 ▲행정 전화 점심시간 안내 멘트 적용(옥수정) ▲보행자 안전을 위한 우회전 시 일단 멈춤 포인트존 설치(김희경) ▲정읍시 교통정보 어플 개발(손은솔) ▲투명페트병 및 캔 자동 수거기 설치(김도하) ▲인사당 시스템 북무결재 대기 처리건수 표시기능 보강(송연순) ▲정읍시 거주 외국인인을 위한 쓰레기 배출 방법 안내문 제작 홍보(정기룡)가 최종 선정됐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정읍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희망농가 조사

정읍시가 농촌인구 감소와 농번기 일손 부족에 따른 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2023년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희망 농가 수요를 조사한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농번기 고질적인 일손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단기간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제도다.

외국인 근로자의 도움이 필요한 농가는 오는 11월4일까지 신분증과 농업경영체 등록증을 지참해 읍·면 사무소와 두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 농가별 고용할 수 있는 인원은 작물·재배면적에 따라 최대 9명이다.

단 미취학 아동 양육 농가와 65세 이상 농업인, 근로조건 우수농가 등 가점 부여 기준을 충족한 농가는 최대 3명을 추가로 신청할 수 있다.

참여 농가는 근로자에게 적정 주거 환경과 최저 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고 근로 시간과 휴게·휴일 보장 등 고용주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춘향사당 또 왜색 논란...외벽에 日 황실 국화꽃 문양

내부 벽면에 조선총독부 상징 문양 2020년 친일작가가 그린 영정 철거 남원시 "전문가 검증 후 후속 조치"

남원 '춘향사당'에 대한 왜색 논란이 또다시 불거졌다.

지난 2020년 친일작가가 그린 춘향 영정 철거에 이어 이번에는 사당 내 벽면에 새겨진 일부 문양이 일본 황실 상징 국화꽃 문양을 연상케 한다는 등의 논란이 일고 있다.

남원시와 지역 시민사회단체 등에 따르면 논란이 되고 있는 문양은 춘향사당 외벽에 그려진 10여개의 붉은 꽃잎이다. 이 붉은 꽃잎의 경우 일본 황실 상징 국화꽃 문양과 비슷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춘향 영정이 모셔진 건물 내부 벽면에는 조선총독부를 상징한 문양이 연상되는 그림이 그려져 있다는 점도 지적되고 있다.

지역 일각에서는 춘향사당 곳곳에 친일 잔재가 여전히 남아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공론화를 통한 철저한 조사 및 복원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남원시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일본식 문양이



남원 '춘향사당' 벽면에 그려져 있는 일부 문양을 놓고 친일잔재 논란이 일고 있다. 원안의 붉은 꽃잎 문양이 일본 황실 상징의 국화꽃을 연상케 한다는 주장이다. <최초춘향영정복원추진시민연대 제공>

다, 아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하지만 일부에서 문제가 제기됐고 논란이 일고 있는 만큼 해당 문양 및 그림이 어떻게 그려지고 새겨졌는지를 자문을

구해볼 방침이다"면서 "전문가 검증을 거쳐 후속 조치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kwangju.co.kr

건강한 생활을 위한 스마트 에어가전이 한 곳에!

DK 디케이 주식회사
www.e-dk.co.kr

벽걸이공기청정기 (36평)
DAP-2299****

mini air(DAP-0403****)
공기청정기 + 블루투스 스피커

0420 공기청정기 (13평)
DAP-0420ANWG

S9 공기청정기 (16평)
DAP-2216NAWH

소비자만족센터(구입 및 A/S)
1544-1154